

## 孟子的 擴充 論理

김 창 환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 1. 머리말

《孟子》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擴而充之’,<sup>1)</sup> 즉 ‘擴充’이라는 단어이다. 논변에 뛰어났던 孟子<sup>2)</sup>가 논리를 전개하면서 운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擴充의 論理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제기한 仁義論, 性善論, 修養論, 仁政論 등이 이에 입각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초보적인 思惟가 이를 통하여 完整한 이론으로 확립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擴充의 논리에 입각하여 《孟子》의 내용을 분석하는 일은 《孟子》

1) <公孫丑上·6章>,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孟子》 본문의 출처 표시는 書名을 생략하고 篇과 章만을 밝힌다.)

2) 劉生良은, “後世流傳的《孟子》一書, 主要是對其論辯之辭的記錄.”이라고까지 하였다 [《孟子》論辯藝術技巧探微>(《蘭州大學學報》 2005年 第2期), p. 61.].

주 제 어: 擴而充之, 擴充의 論理, 仁義, 善性, 修養, 仁政  
확이충지, 擴充의 논리, 인의, 선성, 수양, 인정

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이점에 착안하여 논의한 글들이 몇 편 있지만,<sup>3)</sup> 대개 단편적으로 다루었거나 잘못 다룬 경우들이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 1)에 제시된 《孟子》의 <公孫丑上·6章>은孟子 사상의 핵심인 仁義, 善性, 修養, 仁政 등의 개념이 망라되어 있는 중요한 章이다.<sup>4)</sup> 이러한 개념들은 《孟子》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지만, 본 논문에서는 《孟子》의 내용 전개에서 擴充의 論理가 적용된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네 가지를 개별 항목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맹자가 논리를 전개하면서 사용한 논변 기교나 수사 기교가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내용 전개에 따른 擴充 論理의 적용과 그 사유 과정을 살펴 《孟子》의 내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擴充 論理의 배경

孟子 이전의 유가 경전들, 특히 《論語》, 《大學》, 《中庸》 등에서도 확충의 방식을 채용하여 논리를 전개한 경우가 적지 않다. 孟子는 여기에서 확충의 논리를 차용하고 이를 더욱 체계화시켜 활용했다고 하겠다. 맹자의 확충 논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맹자 이전에 확충의 논리가 운용된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孔子는, 사람의 성품은 비슷하지만 외적인 환경이나 학습, 습관에 의해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sup>5)</sup> 여기서 비슷하다는 개념은 선하고 밝은 면에서 비슷하다는 性善論의 표현이다. 이 구절에서 공자가 말한 ‘習’이 확충의 추형

3) 張曉光(2002), <孟子的推類思想>(《新陽師範學院學報》 第22卷 4期); 劉清平(2005), <論孟子推恩說的深度悖論>(《齊魯學刊》 總第187期); 郭燕華, 詹世友(2006), <存養擴充:孟子道德教化思想之理路>(《南昌大學學報》 第37卷 4期)

4) 구체적인 논의는 제3장 제1절에서 진행한다.

5) 《論語·陽貨》, “子曰, 性相近也, 習相遠也.”

이다. 비슷하던 性品이 좋은 쪽으로 습관이 쌓여 나가면 즉 확충해 나가면 善인이 되고, 나쁜 쪽으로 습관이 쌓여 나가면 惡인이 된다는 人性觀이다. 이러한 人性觀을 바탕으로 《中庸》에서는 보다 논리적으로 性善의 이론을 개진하였다.

하늘이 命해 준 것을 性이라 하고, 性을 따르는 것을 道라 하고, 道를 닦는 것을 教라 한다.<sup>6)</sup>

하늘이 명해 준 것을 일컬어 말한 性은 당연히 선한 것이다. 그 性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는 표현이 性이 선한 본질임을 밝힌 것이다. 이 도리를 수양해 나가는 것이 教라고 하였는데, 이 수양이 바로 확충의 과정이다. 이것이 습관을 좋은 쪽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고 군자가 되는 길이다.

‘習’자가 확충의 논리로 쓰인 전형적인 예가 《論語》의 첫 구절인 “學而時習之。”이다. 이 구절은 도리를 배우고 확충해 나감으로써 修己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공자가 君子에 대해 설명한 다음 구절은 修己治人の 과정과 그 본질을 잘 보여주는 예로서, 보다 구체적인 확충의 논리가 드러나 있다.

子路가 君子에 대하여 물으니, 孔子께서 “敬으로써 자신을 수양한다.”라고 하였다. (子路가) “이와 같을 뿐입니까?”라고 묻자, “자신을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다시 “이와 같을 뿐입니까?”라고 묻자,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堯舜도 아마 어렵게 여기셨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7)</sup>

君子는 敬으로 修己하고 그 성취를 확충하여 安人하며, 安人을 확충해 나가 安百姓한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修己治人の 과정이 바로

6) 《中庸·1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7) 《論語·憲問》,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如斯而已乎. 曰修己以安人. 曰如斯而已乎. 曰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 其猶病諸.”

확충의 과정이다.

이 내용은 《大學》에서 제시한 三綱領과 八條目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있는데, 三綱領과 八條目の 논리 구조가 바로 확충의 논리이다. 三綱領에서 ‘明明德’의 과정도 확충이고 그 바탕 위에서 ‘新民’함도 확충이다. 이러한 과정이 至善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면 또한 부단한 확충의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 세분하여 설명한 八條目の 경우는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八條目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인 格物致知에서 格物은 切磋琢磨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切磋琢磨는 深化의 과정을 잘 비유한 것이니, 역시 확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格物, 즉 절차탁마라는 심화의 과정을 통하여 앎을 지극하게 하는 致知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性이 善함을 알고 修身의 방향이 잡히게 되니 이것이 誠意하여 正心하는 바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점차 확충되어 외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齊家이고 治國이며 平天下이다. 《大學·傳9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堯舜이 천하를 仁으로써 거느리자 백성들이 그를 따랐고, 桀紂가 천하를 포악함으로써 거느리자 백성들이 따랐다.<sup>8)</sup>

堯舜의 경우가 平天下를 이룬 경지이다. 요순은 至善의 상태를 확충하여 민에게 미침으로써 이상적 정치인 仁政을 이루었고, 桀紂는 그 반대의 경우이다. 《大學》의 ‘平天下’를 맹자가 구체화시켜 제시한 것이 ‘王天下’이다. 맹자가 추구한 仁政은 이런 논리와 배경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하겠다.

孔子는 仁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적용할 것을 가르쳤는데, 이 역시 확충의 방법이다.

仲弓이 仁을 묻자 孔子께서 대답하기를, “문을 나갔을 때에는 큰 손님을 만난 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祭祀를 받들 듯이 하며,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였다.<sup>9)</sup>

8) 《大學·傳9章》, “堯舜帥天下以仁, 而民從之, 桀紂帥天下以暴, 而民從之.”

仁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한,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는 것이 ‘恕’이다.恕는 자신의 마음을 확충하여 남의 마음에까지 이르는 것이다.程자가 “자신의 마음으로 상대에게 미칩은仁이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서 상대에게 미칩은 恕이다.”<sup>10)</sup>라고 한 것이 확충의 논리를 설명한 것으로, “推己及物”의 ‘推’가 확충의 방법이다.《論語·雍也》편에서는 “仁者는 자신이 서고자 하면서 남을 세워 주고, 자신이 통달하고자 하면서 남을 통달하게 한다.”<sup>11)</sup>라고 하여 仁의 개념을 구체적인 恕로 설명하였다.《中庸·13章》에서는,

忠恕는 道에서 떨어진 것이 멀지 않으니, 자신에게 행해서 원하지 않는 것을 또한 남에게 행하지 말라.<sup>12)</sup>

라고 하였는데, “違道不遠”이 바로 恕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즉 仁은 완성의 단계이니 道이고, 仁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인 恕는 수양의 단계이니, “道에서 떨어진 것이 멀지 않다(違道不遠)”고 한 것이다.본 논문에서 仁을 제3장 제1절 仁義論에서 다루고, 恕를 제3장 제3절 修養論에서 다룬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 외에도 맹자 이전의 유가 전적들에는 확충의 논리로 살필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위에서 맹자의 확충 논리에 영향을 주었을 유가 경전들에 보이는 몇 가지 예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맹자는 이러한 논리를 참작하고 확충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였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확립하였다고 하겠다.다음에서 孟子가 운용한 擴充의 論理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9) 《論語·顏淵》, “仲弓問仁, 子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10) “以己及物, 仁也, 推己及物, 恕也.”(《論語·里仁》,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註)  
 11) 《論語·雍也》,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12) 《中庸·13章》, “忠恕, 違道不遠, 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

### 3. 擴充 論理의 적용

#### 3.1. 仁義論

맹자의 仁義論은 공자의 주장을 직접 계승하였다. 공자는 仁과 義를 내세우면서 특히 仁을 중시한 반면, 맹자는 그 바탕 위에서 義를 높였다. 程子가, “仲尼는 다만 하나의 ‘仁’字만을 말하였는데 孟子는 입을 열면 곧 ‘仁義’를 말하였고, 仲尼는 다만 하나의 ‘志’를 말하였는데 孟子는 곧 허다한 ‘養氣’를 말하였으니, 다만 이 두 글자에 그 공로가 매우 크다.”<sup>13)</sup>라고 하였다. 공자는 仁뿐만 아니라 義를 매우 중시하고 강조하였는데도,<sup>14)</sup> 程子가 “仲尼는 다만 하나의 仁자만을 말하였다.”라고 한 것은, 맹자가 義를 전면에 내세워 사상의 중심 개념으로 삼은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에게 있어 仁義의 확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仁義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음의 선언이 맹자 확충론의 논리 근거이다.

무릇 同類인 것은 대개 서로 같으니, 어찌 유독 사람의 경우에서만 그 점을 의심하겠는가. 聖人도 나와 同類인 자이다.<sup>15)</sup>

萬物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sup>16)</sup>

이 두 예문은 그 함의가 동일하다. <告子上·7章>은 동류인 것을 미루

13) 《孟子集註·序說》, “仲尼只說一箇仁字, 孟子開口便說仁義, 仲尼只說一箇志, 孟子便說許多養氣出來, 只此二字, 其功甚多.”

14) 《論語·里仁》,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論語·述而》, “德之不修, 學之不講, 聞義不能徙, 不善不能改, 是吾憂也.”; 《論語·衛靈公》, “君子, 義以爲質, 禮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君子哉.”

15) <告子上·7章> “凡同類者, 舉相似也, 何獨至於人而疑之. 聖人, 與我同類者.”

16) <盡心上·4章>, “萬物, 皆備於我矣.”

어서, 즉 仁義의 본성을 확충시켜 至善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사고에서, “사람은 다 堯舜이 될 수 있다.”<sup>17)</sup>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즉 동류인 것을 미루어 확충시키면 堯舜 같은 聖인이 될 수 있다. <盡心上·4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中庸·1章>에서 말했듯이 나에게서는 하늘이 명한 性, 즉 인의의 본성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 性分 안에는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이치가 갖추어져 있고,<sup>18)</sup> 따라서 나를 미루어 나가면 만물의 이치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맹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 마음을 극진하게 하면 그 性을 아니, 그 性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 性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sup>19)</sup>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性과 情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sup>20)</sup> 따라서 내 마음을 극진하게 하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性을 알게 된다. “그 마음을 극진하게 함(盡其心)”의 ‘盡’은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其心’은 性情이다. 여기에서 극대화시킨다는 것이 확충이다.<sup>21)</sup> “그 性을 앎(知其性)”의 ‘知’는 내가 지닌 仁義의 본성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늘이 이를 명해 준 이치, 즉 天命을 알게 된다.[知天] 정리하자면, 내가 지니고 있는 마음을 확충하여 극대화시키면 그 안에 내재된 성이 선한 것임을 알게 되고, 나아가 그것을 나에게 부여해 준 하늘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善性이 내재된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 “그 마음을 보존함(存其心)”이

17) <告子下·2章>, “曹交問曰, 人皆可以爲堯舜, 有諸. 孟子曰, 然.”

18) <盡心上·4章> 朱子註, “大則君臣父子, 小則事物細微, 其當然之理, 無一不具於性分之內也.”

19) <盡心上·1章>, “盡其心者, 知其性,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20) <公孫丑上·6章> 朱子註, “惻隱羞惡辭讓是非, 情也, 仁義禮智, 性也, 心統性情者也.”

21) 楊伯峻은 “盡其心”을 “充分擴張善良の本心”이라고 풀었는데, [《孟子譯註》(中華書局, 1962), p. 301.] 여기에서 ‘擴張’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확충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

니, 그 방법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잊지 않는 것이다. “그 性을 기름(養其性)”은 善端을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하늘을 섬기는 것(事天)’이라고 하였다. ‘事天’은 하늘의 이치를 받들어 실천한다는 뜻이다. 이 각각의 단계가 擴充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朱子는 이 章에 대해, “心은 사람의 神明이니, 모든 理를 갖추고 있으면서 萬事에 응하는 것이다. 性은 바로 心이 갖추고 있는 理요, 天은 또 理가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全體가 아님이 없지만, 이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가려지는 바가 있어 이 心의 分量을 극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心의 全體를 극진하게 하여 다하지 않음이 없는 자는 반드시 理를 궁구하여 알지 못함이 없는 자이다. 이미 그 理를 알게 되면, 그것이 말미암아 나오는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sup>22)</sup>라고 하여 맹자의 논지를 더욱 분명하게 하였다. 즉 窮理하여 마음이 외물에 가리지 않도록 하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분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도록 해야 하니 이것이 확충의 과정이다.

다음에서 맹자는 仁義의 본질을 가깝고도 쉬운 비유로 설명하였다. 여기에도 역시 확충의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仁의 실상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고, 義의 실상은 兄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다.<sup>23)</sup>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확충하여 愛를 미루어 나가는 것이 仁의 완성이고, 兄을 따르는 것을 확충하여 敬을 미루어 나가는 것이 義의 완성임을 제시한 것이다. 주자가, “仁은 사랑을 위주로 하는데 사랑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으며, 義는 공경을 위주로 하는데 공경은 兄을 따르는

22) <盡心上·1章> 朱子註, “心者, 人之神明, 所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性則心之所具之理, 而天又理之所從以出者也. 人有是心, 莫非全體, 然不窮理, 則有所蔽而無以盡乎此心之量. 故能極其心之全體而無不盡者, 必其能窮夫理而無不知者也. 既知其理, 則其所從出, 亦不外是矣.”

23) <離婁上·27章>, “仁之實, 事親是也, 義之實, 從兄是也.”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仁義의 道가 그 쓰임이 지극히 넓으나 그 실상은 아버이를 섬기고 뉘를 따르는 사이를 넘지 않으니, 良心의 발로가 가장 간절하고 가까우면서 精密하고 진실한 것이다. 有子가 孝弟를 가지고 仁을 행하는 근본으로 삼았는데, 그 뜻이 또한 이와 같다.”<sup>24)</sup>라고 하였다. 주자의 이 주장은 뒤집어서 말하면 良心의 발로가 가장 절실하게 드러나는 것에서부터 확충해 가라는 말이다. 이것이 老吾老하여 以及人之老<sup>25)</sup> 하는 것이고 親親仁民愛物<sup>26)</sup>하는 확충이니, 仁義의 완성 과정이다. 張栻<sup>27)</sup>은 仁義를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 擴充의 論理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람이 仁義를 행하는 것은 性分の 본연함이다. 아버이를 사랑함으로부터 미루어 나가 仁에 이르면 (仁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며, 어른을 공경함으로부터 미루어 나가 義에 이르면 (義를)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본디 가지고 있는 바를 따르는 것이지 밖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sup>28)</sup>

아버이를 사랑함으로부터 미루어 감으로써 仁이 완성되고, 어른을 공경함으로부터 미루어 감으로써 義가 완성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서 ‘미룬다(推)’는 표현은 ‘확충해 나간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본디 소유하고 있는 仁義의 실상[其所素有]을 확충해 나가면, 仁義의 적용이 극대화[不可勝用]될 수 있다는 것이다.

24) <離婁上·27章> 朱子註, “仁主於愛而愛莫切於事親, 義主於敬而敬莫先於從兄. 故仁義之道, 其用至廣, 而其實, 不越於事親從兄之間, 蓋良心之發, 最爲切近而精實者. 有子以孝弟爲仁之本, 其意亦猶此也.”

25) <梁惠王上·7章>

26) <盡心上·45章>

27) 張栻 : 宋代 학자로 朱子와 交분이 두터웠다. 자는 敬夫이고 號는 南軒이다.

28) <告子上·1章> 註, “人之爲仁義, 乃性之本然. 自親親而推之, 至於仁, 不可勝用, 自長長而推之, 至於義, 不可勝用. 皆順其所素有, 而非外之也.”

맹자가 公孫丑와의 대화에서 제기한 浩然之氣도 확충의 논리에 입각하여 이해하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浩然之氣는 義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集義所生],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정직[直]을 확충하여 天地 사이에 꽉 차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감히 묻겠습니다. 무엇을 浩然之氣라 합니까?” “말하기 어렵다. 그 氣됨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정직으로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天地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sup>29)</sup>

浩然之氣는 直으로 기르는 것이니 이 과정이 ‘養氣’이고, 다시 그 과정을 확충시켜 나가면 “天地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塞于天地之間)”는 것이다. “以直養”은 확충의 과정이고 “塞于天地之間”은 확충의 결과로, 이 가득함이 완성의 경지이다. 그래서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 아래로는 인간에 부끄럽지 않게”<sup>30)</sup> 되니, 이것이 義의 至善의 경지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仁義가 최선의 상태에 이르고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擴充에 있음을 인식하고 강조한 맹자의 논리를 살필 수 있다.

### 3.2. 性善論

맹자의 性善論은 멀리 堯舜에서부터 《易經》, 《詩經》, 《書經》 등의 人性에 관한 논의에서 遠因을 찾을 수 있겠지만,<sup>31)</sup> 구체적 近因으로는 앞에서 살폈듯이 공자의 性에 대한 언급과 《中庸·1章》을 들 수 있다. 이렇듯이 유가의 전통적인 人性觀을 바탕으로 하여 맹자는 性善論을 확립하였

29) <公孫丑上·2章>, “敢問何謂浩然之氣. 曰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

30) <盡心上·20章>, “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

31) <周易·繫辭上>,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詩經·大雅·烝民>, “天生烝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 <書經·堯典>, “克明俊德, 以親九族.”; <滕文公上·1章>,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

다.<sup>32)</sup> 맹자는 <公孫丑上·6章>에서,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의 예를 들어 惻隱之心을 내세움으로써 성선론을 증명하였다.

사람이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지금 어떤 사람이 얼핏 어린아이가 막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는 누구든지 깜짝 놀라고 惻隱해 하는 마음을 가지니, 어린아이의 父母와 교분을 맺으려고 해서도 아니고, 鄉黨의 朋友들에게 명예를 구하려고 해서도 아니며, 구해주지 않았다는 소문을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羞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辭讓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惻隱之心은 仁의 단서이고 羞惡之心은 義의 단서이며, 辭讓之心은 禮의 단서이고 是非之心은 智의 단서이다. 사람이 이 四端을 가지고 있는 것은 四肢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데, 이 四端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자기 임금이 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sup>33)</sup>

맹자가 성선론의 근거로 제시한 위의 주장에 확충의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사람은 원래 惻隱之心이 있음을 제시하고, 이것이 仁의 단서이기 때문에 확충하여 극대화시켜야 仁이 완성됨을 밝힌 것이다. 맹자는 惻隱之心으로 性의 선함을 증명하였는데, 우리가 四端을 지니고 있음은 性이 현상에 드러나는 情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4)</sup> 맹자가, “湯武는 실천하신 것이

32) <告子上·2章>,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33) <公孫丑上·6章>,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知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 自賊者也, 謂其君不能者, 賊其君者也.”

34) 程子は “가슴 속에 가득한 것이 측은지심이다(滿腔子是惻隱之心)”라고 하였다.(<公孫丑上·6章> 朱子註)

다.”<sup>35)</sup>라고 하여 四端을 극대화시켰던 예로 湯王과 武王의 경우를 들었듯이, 사람의 성품은 선하지만 그 善端이 완전하게 발휘되고 至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맹자는 善端 확충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릇 자신에게 사단을 갖추고 있는 자가 이것들을 모두 확충할 줄 안다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듯 하며 샘물이 처음 솟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일 이것을 제대로 채운다면 족히 四海를 보호할 수 있고, 만일 채우지 못한다면 父母도 섬길 수 없다.”<sup>36)</sup>

四端을 확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요원의 불길처럼, 거대한 강하처럼 커져 결국 四海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맹자는 四端이 仁義禮智로 완성되는 과정과 방법을, ‘擴而充之’로 천명한 것이다. 이 장에 대한 朱子와 程子の 다음 설명이, 맹자가 운용한 확충의 논리를 잘 드러내 주고 있어 자세히 음미할 만하다.

擴은 미루어 넓힌다는 뜻이고 充은 가득하게 하는 것이다. 四端이 나에게 있어 곳에 따라 드러나니, 모두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 本然의 量을 미루어 넓혀서 가득하게 할 줄 안다면, 날로 새롭고 또 새로워져 장차 스스로 그만두지 못함이 있게 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확충해낸다면 四海가 비록 머나 또한 나의 범위 안이어서 보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확충하지 못한다면 비록 일이 지극히 가까운 것이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 논한 바, 사람의 性情과 마음의 體用은 本然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각기 條理가 있음이 이와 같으니, 배우는 자가 이에 대하여 돌이켜 찾고 묵묵히 알아서 확충한다면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바를 다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程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이 마음을 가

35) <盡心上·30章>, “湯武, 身之也.”

36) <公孫丑上·6章>,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

지고 있으나 오직 君子만이 넓혀서 채울 수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는 모두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채우고 채우지 못함은 또한 자신에게 달려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sup>37)</sup>

맹자가 제시한 확충의 개념이 주자와 정자의 설명을 통하여 분명해진다. 주자와 정자 모두 맹자의 ‘擴而充之’라는 개념과 용어를 인용하여 孟子的 性善論을 설명하고 있다. 주자는 맹자의 ‘擴而充之’를 풀어 “미루어 넓혀서 가득하게 한다(推廣而充滿)”라고 하였는데, 한마디로 四端을 극대화함을 지적인 것이다. <告子上·6章>에서는 다음과 같이 惻隱之心을 아예 仁으로 단정하였다.

惻隱之心을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고 羞惡之心을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으며, 恭敬之心을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고 是非之心을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다. 惻隱之心은 仁이고 羞惡之心은 義이며, 恭敬之心은 禮이고 是非之心은 智이다.<sup>38)</sup>

<公孫丑上·6章>에서 말한 “惻隱之心, 仁之端也.”는 확충의 논리 전개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惻隱之心, 仁也.”는 性情의 體用論에 입각한 정의이다. 이는 논증을 위한 방법론의 차이이고 시선을 달리 한 것일 뿐, 내용은 마찬가지로 같다. 體用의 입장에서 보면 惻隱之心은 情으로 用이고, 仁은 性으로 體이니 같은 것이다. 즉 “惻隱之心, 仁也.”는 본질과 현상을 같이 보는 차원에서 설명한 一元論의 관점이고, “惻隱之心, 仁之端也.”는 性善은 분명

37) <公孫丑上·6章> 朱子註, “擴, 推廣之意, 充, 滿也. 四端在我, 隨處發見, 知皆卽此推廣而充滿其本然之量, 則其日新又新, 將有不能自己者矣. 能由此而遂充之, 則四海雖遠, 亦吾度內, 無難保者, 不能充之, 則雖事之至近, 而不能矣. 此章所論人之性情, 心之體用, 本然全具而各有條理如此, 學者於此, 反求默識而擴充之, 則天之所以與我者, 可以無不盡矣. 程子曰, 人皆有是心, 惟君子爲能擴而充之, 不能然者, 皆自棄也. 然其充與不充, 亦在我而已矣.”

38) “惻隱之心, 人皆有之, 羞惡之心, 人皆有之, 恭敬之心, 人皆有之, 是非之心, 人皆有之. 惻隱之心, 仁也, 羞惡之心, 義也, 恭敬之心, 禮也, 是非之心, 智也.”

하지만 그것은 확충을 통해서만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확충의 논리이다.

이 四端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확충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이는 스스로가 버리기 때문이다. 맹자는 이 상태를 위의 <公孫丑上·6章>에서, ‘사람이 아님(非人)’으로 단정하였는데, 이렇게 ‘非人’이 되는 이유를 <告子上·11章>에서는, ‘放其心’ 때문이라고 하였다.

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義는 사람의 길인데,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고 찾을 줄을 모르니, 슬프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가 도망가면 찾을 줄을 알면서, 마음을 잃고서는 찾을 줄을 모른다. 學問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으니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sup>39)</sup>

해결책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求其放心)’이고 이것이 학문의 길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存心’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자는 이를 설명하여, “學問의 일은 진실로 한 가지가 아니나, 그 방법은 放心을 찾는 데에 있을 뿐이다.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志氣가 청명해지고 義理가 밝게 드러나 위로(天理에) 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昏昧하고 放逸하여 비록 學問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끝내 밝혀내는 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程子が 말하기를, ‘聖賢의 천만 마디 말씀이 다만 사람들이 이미 잃어버린 마음을 묶어서, 돌이키어 다시 몸에 들어오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찾아서 위로 향해 갈 수 있으니, 아래로(人事를) 배워 위로(天理에) 통하게 될 것이다.’”<sup>40)</sup>라고 하여, 善端을 유지하고 확충해야 하는 이유를 간곡하게 설명하였다.

요컨대 人性은 맑고 밝은 본질이 있어 샘이 솟는 원천과 같지만,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고 흘러내려야 큰 강이 되고 큰 바다가 되듯이, 人性도 확

39) <告子上·11章>, “仁, 人心也, 義, 人路也, 舍其路而不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人有鷄犬放, 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

40) “學問之事, 固非一端, 然其道則在於求其放心而已. 蓋能如是, 則志氣清明, 義理昭著, 而可以上達, 不然則昏昧放逸, 雖曰從事於學, 而終不能有所發明矣. 故程子曰, 聖賢千言萬語, 只是欲人將已放之心約之, 使反復入身來. 自能尋向上去, 下學而上達也.”

충해 나가고 닦아 나가야 完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맹자가 주장한 性善論의 본질이다. 즉 현상에서 드러나는 四端을 끊임없이 확충하고 유지하기를 반복하여, 요원의 불길처럼 상대해지고 江河의 大水처럼 풍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3.3. 修養論

<盡心下·25章>에서 맹자는, 浩生不害가 樂正子の 사람됨을 묻자 ‘善’과 ‘信’으로 대답하였다. 浩生不害가 다시 善과 信에 대해 묻자 ‘善’, ‘信’, ‘美’, ‘大’, ‘聖’, ‘神’이라는 인격수양의 단계를 설명해 주었다. 이 개념들도 이 확충의 논리에 따라 고찰해 보면 그 함의가 분명해진다.

浩生不害가, “樂正子是 어떠한 사람입니까?”라고 묻자, 맹자가 “善인이며, 信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무엇을 善이라 하고 무엇을 信이라 합니까?” “바람직한 것을 善이라 하고 그것을 자기 몸에 소유한 것을 信이라 하며, 가득 찬 것을 美라 하고 가득 차서 빛이 있는 것을 大라 하며, 크면서 변화되는 것을 聖이라 하고 聖스러워져 알 수 없는 것을 神이라 한다.”<sup>41)</sup>

善을 확충하여 참되게 하면[信] 내적으로 충만되어[美] 밖으로 드러난다. [大]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빛이 있음[有光輝]’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大이다. 부연하면 “有諸己之謂信”은 善을 확충해 나가 진짜 자기 것으로 한 것이고, “充實之謂美”는 내 것이 된 善을 꽉 채워 가득하게 확충시킨 상태이다.<sup>42)</sup> “充實而有光輝之謂大”는 충만된 善이 밖으로 드러나 빛나는 것이다. 선을 확충하여 내 안에 가득 차게 하면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41) <盡心下·25章>, “浩生不害問曰, 樂正子, 何人也. 孟子曰, 善人也, 信人也. 何謂善, 何謂信. 曰可欲之謂善, 有諸己之謂信, 充實之謂美, 充實而有光輝之謂大, 大而化之之謂聖, 聖而不可知之之謂神.”

42) 許體(2007), <論孟子“充實之謂美”的美學意蘊>(《新餘高專學報》第12卷 第1期), p. 49, “‘善’與‘信’, 擴展傾注于人的內心, 并充實盈滿, 方可言美.”

다. 이 여섯 단계의 고리가 ‘美’이다. 즉 ‘善’과 ‘信’은 美를 이루는 내적 조건이고, ‘大’, ‘聖’, ‘神’은 美가 드러나는 외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내적 확충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盡心上·21章>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君子가 本性으로 삼은 것은 仁義禮智가 마음 속에 뿌리가 되어 그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윤택하니, 얼굴에 드러나고 등에 가득하며, 온몸에 베풀어져 몸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알 수 있다.<sup>43)</sup>

仁義禮智가 마음 속에 뿌리가 되고 이 뿌리가 싹으로 나온다. 이 싹을 키워 열매 맺고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仁의 완성이다. 즉 초목으로 비유하면 싹이 트고 성장하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확충의 과정이니, 점진적인 자기수양의 결과가 밖으로 드러남을 밝힌 내용이다.

이러한 확충의 修養論은 맹자의 交友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萬章下·8章>에서 맹자는 ‘尙友’라는 용어를 제기하였는데, 《論語》에서 曾子가 말한 ‘以友輔仁’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고을의 善士라야 한 고을의 善士와 벗할 수 있고 한 나라의 善士라야 한 나라의 善士와 벗할 수 있으며, 天下의 善士라야 天下의 善士와 벗할 수 있다. 天下의 善士와 벗하는 것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겨 다시 위로 옛사람을 논하게 되는데, 그의 詩를 외우고 그의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면 되겠는가. 이 때문에 그의 시대를 논하는 것이니, 이것이 위로 벗하는 것이다.<sup>44)</sup>

43) <盡心上·21章>, “君子所性, 仁義禮智根於心, 其生色也粹然, 見於面, 盎於背, 施於四體, 四體不言而喻.”

44) <萬章下·8章>, “一鄉之善士, 斯友一鄉之善士, 一國之善士, 斯友一國之善士, 天下之善士, 斯友天下之善士. 以友天下之善士, 爲未足, 又尙論古之人, 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 可乎. 是以論其世也, 是尙友也.”

맹자는 선이 더욱 확충되면서 교우의 폭도 넓어지게 됨을 말하고 있다. 以友輔仁의 최선의 경지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 결국 尙友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尙友는 고금을 망라하는 交遊이니, 交友에 있어서도 교우의 범위를 극대화시켜 最善의 경지에 이르러자 하는 확충의 논리를 드러내고 있다. 朱子가, “능히 天下의 善士와 벗할 수 있다면 그 벗한 것이 많은데도, 오히려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겨서 또 나아가 古人을 취하니, 이는 그 벗을 취하는 道를 진전시키는 것으로 다만 한 시대의 선비를 벗할 뿐만이 아닌 것이다.”<sup>45)</sup> 라고 하였는데, “進其取友之道”의 ‘進’이 또한 맹자의 확충의 논리를 잘 대변하는 용어라고 하겠다.

仁義의 善端을 확충하는 것이 맹자의 수양론의 핵심이다. 맹자는 이 善端을 자주 초목의 싹에 비유하여, 그 싹을 잘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것으로 수양의 방법을 설명하였다. <告子上·7章>에서는, 보리의 싹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금 보리를 파종하고 씨앗을 덮는데, 그 땅이 같고 심는 시기도 같으면 무성하게 자라서 夏至 때에 이르러 모두 익게 된다. 비록 같지 않은 것이 있으나, 땅에 비옥하고 척박함이 있으며 비와 이슬의 길러줌과 사람이 가꾸는 일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sup>46)</sup>

땅의 비옥함과 척박함, 비와 이슬의 길러줌은 환경을 가리키고, 사람이 가꾸는 일은 사람의 노력이다. 이런 제반 요소들이 바로 存養의 조건이니, 싹을 제대로 보호하고[存] 살피야[養] 제대로 성장하여 완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잘 길러주는 것은 성장에 절박한 조건이다. <告子上·8章>에서는, 나무의 싹을 비유로 들어 확충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45) “夫能友天下之善士，其所友衆矣，猶以爲未足，又進而取於古人，是能進其取友之道，而非止爲一世之士矣。”

46) <告子上·7章>，“今夫粳麥，播種而耰之，其地同，樹之時又同，淳然而生，至於日至之時，皆熟矣。雖有不同，則地有肥磽，雨露之養，人事之不齊也。”

牛山の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었는데, 그것이 큰 도성에 인접하였기 때문에 도끼와 자귀로 베어가니,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그 밤낮으로 자라는 것과 비와 이슬이 적셔주는 바에 싹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소와 양이 또 따라서 거기에 방목된다. 이 때문에 저와 같이 민둥민둥해졌다. 사람들은 그것이 민둥민둥한 것을 보고는 일찍이 재목이 있던 적이 없었다고 여기는데, 이것이 어찌 山의 본질이겠는가. 비록 사람에게 간직되어 있는 것도 어찌 仁義의 마음이 없으리오만, 그가 자신의 良心을 잃어버리는 것이 또한 도끼와 자귀가 나무를 날마다 베어 내는 것과 같으니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밤기운이 길러주는 것과 새벽의 맑은 기운에도 그가 (善을) 좋아하고 (惡을) 미워함이 남들과 서로 가까운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낮에 하는 소행이 이것마저 억제하고 없앤다. 억제하기를 반복하면 밤에 확충되었던 기운이 보존될 수 없고, 밤에 확충되었던 기운이 보존될 수 없으면 禽獸와 거리가 멀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그가 금수인 것을 보고 일찍이 바탕이 있지 않았다고 여기지만, 이것이 어찌 사람의 實情이겠는가. 그러므로 만일 제대로 된 기름을 얻으면 물건마다 자라지 못하는 것이 없고, 만일 제대로 된 기름을 잃으면 물건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 孔子께서 이르기를,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게 되며, 드나들이 때가 없고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일컫는 것이리라.”라고 하였다.<sup>47)</sup>

싹을 잘 기르지 못하여 존양이 되지 않는 상황과 싹을 잘 키워 주는 요소를 대비하고 있다. 낮은 외물과 접함으로써 仁義의 마음을 잃기 쉬운 상황을 비유한 것이고 밤은 외물과 접하지 않아 仁義의 마음을 유지하고 확충할 수 있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외물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修養하면 仁

47) <告子上·8章>, “牛山之木, 嘗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伐之, 可以爲美乎. 是其日夜之所息, 雨露之所潤, 非無萌蘖之生焉, 牛羊又從而牧之. 是以若濯濯也. 人見其濯濯也, 以爲未嘗有材焉, 此豈山之性也哉. 雖存乎人者, 豈無仁義之心哉, 其所以放其良心者, 亦猶斧斤之於木也, 旦旦而伐之, 可以爲美乎. 其日夜之所息, 平旦之氣, 其好惡與人相近也者幾希, 則其旦晝之所爲, 有梏亡之矣. 梏之反覆, 則其夜氣不足以存, 夜氣不足以存, 則其違禽獸, 不遠矣. 人見其禽獸也, 而以爲未嘗有才焉者, 是豈人之情也哉. 故苟得其養, 無物不長, 苟失其養, 無物不消. 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

義가 더욱 확충될 것이고, 외물과 접해도 확충된 仁義를 잃지 않는다면 밤낮으로 수양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주위 환경은 人力으로 되지 않는 요소가 많지만, 사람이 善端의 싹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존하고 기르는 자신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그 마음을 제대로 기르는 것이 ‘操則存’이고, 그 반대가 ‘舍則亡’이다. 맹자의 다음 비유에서 그 싹을 보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왕이 지혜롭지 못한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비록 天下에 쉽게 자라는 식물이 있더라도 하루 동안 햇볕을 쬐고 열흘 동안 차게 하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임금을) 뽑는 것이 또한 드물고 내가 물러나면 임금을 차게 하는 자들이 이르게 되니, 싹이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sup>48)</sup>

따뜻하게 햇볕을 쬐이는 것이 싹을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잘 익어 성취가 있게 된다. 사람이 仁義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이끄는 상황이 많고 그 반대의 경우가 적으면 仁義가 보존되고 길러질 것이다. 맹자는 따라서 아무리 善端의 싹을 지니고 있어도 제대로 성장시켜 익숙하게 하지 못하면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하였다.

五穀이라는 것은 종자 중에 좋은 것이지만, 만일 익지 못하면 피만도 못하다. 仁도 역시 그것을 익숙하게 함에 달려 있을 뿐이다.<sup>49)</sup>

아무리 좋은 싹이라도 제대로 기르지 못하면 쓸모없는 피만도 못하다는 비유는, 仁의 善端을 잘 유지하고 확충시켜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확충만이 제대로 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주자는, “仁을 행함은 반드시 익숙하게

48) <告子上·9章>, “無或乎王之不智也。雖有天下易生之物也，一日暴之，十日寒之，未有能生者也。吾見亦罕矣，吾退而寒之者至矣，吾如有萌焉何哉。”

49) <告子上·19章>, “五穀者，種之美者也，苟爲不熟，不如莠稗。夫仁，亦在乎熟之而已矣。”

함을 귀하게 여기니, 다만 그 종자가 아름다운 것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또 仁이 익숙하게 하기 어렵다고 하여 다른 일을 해서 성공이 있는 것을 달게 여겨서도 안 된다.”<sup>50)</sup>라고 하였는데, 씨앗도 잘 기르는 데에 성취가 있듯이 仁 또한 ‘익숙하게 함(熟)’, 즉 확충에 그 가치가 달려있다는 설명이다.

그 싹은 약하고 작은 것이라서 잘 보존하고 잘 키워야 한다. 이는 <離婁下·19章>에서 ‘얼마 안 되는 것(幾希)’으로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싹을 키우듯이 仁義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禽獸와 다른 것이 얼마 안 되는데, 보통사람들은 이것을 버리고 君子는 이것을 보존한다.<sup>51)</sup>

얼마 안 되는 것을 키우고 확충시켜 “塞于天地之間”하면 完善한 聖人이 될 수 있다. 郭燕華, 詹世友(2006)는, ‘幾希’에 대해 설명하면서 맹자의 말<sup>52)</sup>을 援用하여, ‘배우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는 良能(不學而能的良能)’과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良知(不慮而得的良知)’의 道德能力이라고 하였다.<sup>53)</sup> 그런데 그 도덕능력은 ‘幾希’라서 자칫하면 잃기 쉽다. 주자는 이에 대해, “사람과 동물이 태어날 때에 똑같이 天地의 理를 얻어 性を 삼았고 똑같이 天地의 氣를 얻어 形체를 삼았다. 그 같지 않은 것은, 오직 사람만이 그 사이에서 形氣의 을바름을 얻어 그 本性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sup>54)</sup>라고 하였다. ‘그 본성을 온전히 함(全其性)’의 ‘全’이 바로 확충으로 가능한 것이니, 性分の 분량을 최대화하여 제대로 발휘할 수

50) “爲仁, 必貴乎熟, 而不可徒恃其種之美, 又不可以仁之難熟而甘爲他道之有成也. 尹氏曰, 日新而不已則熟.”

51) <離婁下·19章>,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52) <盡心上·15章>, “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

53) 郭燕華, 詹世友(2006), <存養擴充: 孟子道德教化思想之理路>(《南昌大學學報》第37卷 4期), p. 43.

54) “人物之生, 同得天地之理, 以爲性, 同得天地之氣, 以爲形. 其不同者, 獨人於其間, 得形氣之正而能有以全其性, 爲少異耳.”

있게 하는 것이다.

맹자는 <盡心上·4章>에서 자기를 확충하여 상대에 이르는 도리인 恕로 仁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恕를 힘써서 행하면 仁을 구함이 이보다 가까운 것이 없다.<sup>55)</sup>

인을 이루는 방법은 恕, 즉 ‘내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推己及人)’만한 것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恕’가 바로 나의 마음을 확충하여 남에게까지 미치는 확충의 논리이다. 이해경(2008)은, “맹자는 인간의 핵심은 마음이라 생각했고 그 마음이 뻗어가는 데까지가 자신이라고 생각하였다. 인간의 육체는 작은 몸으로 한정되지만 마음은 세상 끝까지 뻗어갈 수 있다. 맹자는 자신을 비롯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믿었고 실제로 그의 삶은 그런 존재가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함과 명랑함으로 가득 차 있다.”<sup>56)</sup>라고 하였는데, 맹자가 밝힌 ‘恕’의 공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仁義의 보존과 함양을 修養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맹자는 修養의 방법을 여러 가지 싹을 키우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성장과 결실의 과정이 확충이다.

### 3.4. 仁政論

仁政은 맹자가 공자의 仁을 계승하여 정치론으로 체계화시킨 것으로, 修己治人の理想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修己의 이상적 상태가 仁義의 실천을 통한 善性の 보존과 확대인 인격의 완성이고, 治人の 이상적 상태가 善性の 확충과 적용을 통한 왕도의 실현이라고 하겠다. 張彦修(2007)는, 공자가 강조한 仁이라는 도덕 개념을 仁政이라는 정치 개념으로 확대한 공은 맹자에게 있다고 하였다.<sup>57)</sup> 공자도 爲政에 仁義의 덕을 강조하였지만,<sup>58)</sup> 孟子는

55) <盡心上·4章>, “強恕而行, 求仁, 莫近焉.”

56) 이해경(2008), 《맹자,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길》(도서출판 그린비), pp. 4-5.

仁이라는 德性을 仁政이라는 정치론으로 확대시켰다고 하겠다.

맹자는 다음에서 비근한 비유를 들어, 仁政의 실현은 至難한 것이 아니라 고 하였는데, 역시 확충의 논리가 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道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 먼 곳에서 구하며, 일은 쉬운 데 있는데 어려운 것에서 찾는다. 사람마다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신의 어른을 어른 대접하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것이다.<sup>59)</sup>

仁을 이루는 발단인 ‘親親’과, 義를 이루는 발단인 ‘長長’이라는 쉽고도 가까운 도리를 실천하여 그것을 확충하면 ‘天下平’이라는 仁政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親親과 長長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으로, 가깝고 쉬운 이치를 확충하는 데에서 天下平의 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확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예가 ‘親親仁民愛物’이다.

“君子가 만물에 대해서는 아끼기만 하고 仁하지 않으며, 백성에 대해서는 仁하기만 하고 親하지 않으니, 아버지를 사랑하고서 백성에게 仁하고, 백성에게 仁하고서 만물을 아끼는 것이다.”<sup>60)</sup>

여기서는 差等愛의 다름을 강조하고 있지만, 맹자의 차등애는 사랑의 확충 과정으로 볼 때 더욱 분명하게 설명이 된다. 親親에서 단계에 따라 넓혀나가 仁民, 愛物로까지 확충된다. 이것이 仁政을 이루는 단계이다. 親, 仁, 愛는 가깝고 쉬운 데에서 멀고 어려운 데로 확대해서 적용해 가는 것이다.

57) 張彥修(2007), <孟子對孔子仁的推演事迹的述評與聖化>(《河南大學學報》第47卷3期), p. 33.

58) 《論語·爲政》,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 而衆星, 共之.”;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59) <離婁上·11章>, “道在爾而求諸遠, 事在易而求諸難. 人人親其親, 長其長, 而天下平.”

60) <盡心上·45章>, “君子之於物也, 愛之而弗仁, 於民也, 仁之而弗親,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程子가, “仁은 내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으로, 내 노인을 노인으로 섬겨서 남의 노인에게 미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를 사람에게 하는 것은可하나, 만물에 하는 것은不可하다. 통틀어 말한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仁이요, 나누어 말한다면 차례가 있는 것이다.”<sup>61)</sup>라고 하였듯이, 전체로 말하면 仁이고 나누어 말하면 親, 仁, 愛이다.

맹자는 이웃 나라와의 교제에 관하여 질문한 齊 宣王에게, 仁政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작은 용기를 확충하여 仁政의 수단으로 하고, 부부간의 애정을 확충하여 政事에 적용할 것을 <梁惠王下·3章>과 <梁惠王下·5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홀륭합니다. 그 말씀이여! 寡人은 병통이 있으니, 과인은 용기를 좋아합니다.” 孟子가 대답하였다. “왕은 청컨대 작은 용기를 좋아하지 마소서. 칼을 잡고서 노려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 감히 나를 상대하려는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匹夫의 용기로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니, 왕은 용기를 크게 하소서. 《詩經》에 이르기를, ‘王께서 크게 노하시어 이에 그 군대를 정돈하여 침략하려 가는 무리들을 막았으니, 周나라의 福을 돈독히 하여 天下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文王의 용기입니다. 문왕은 한번 노하여 天下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습니까.”<sup>62)</sup>

왕이 말하였다. “寡人은 병통이 있으니, 과인은 여색을 좋아합니다.” 孟子가 대답하였다. “옛적에 大王이 여색을 좋아하시어 그 后妃를 사랑하였습니다. 《詩經》에 이르기를, ‘古公 賈父가 아침에 말을 달려와 서쪽 물가를 따라 岐山 아래에 이르러, 이에 姜女와 함께 와서 집터를 보았다.’라고 하였는데, 이때에 안에는 원망하는 여자가 없었으며 밖에는 홀아버가 없었

61) <盡心上·45章> 朱子註, “仁, 推己及人, 如老吾老, 以及人之老, 於民則可, 於物則不可. 統而言之, 則皆仁, 分而言之, 則有序.”

62) <梁惠王下·3章>, “王曰. 大哉. 言矣. 寡人有疾, 寡人好勇. 對曰. 王請無好小勇. 夫撫劍疾視曰, 彼惡敢當我哉. 此匹大之勇, 敵一人者也, 王請大之. 詩云, 王赫斯怒, 爰整其旅, 以邊徂莒, 以篤周祜, 以對于天下. 此文王之勇也, 文王一怒而安天下之民.”

습니다. 왕께서 만일 여색을 좋아하시기를 백성과 더불어 (그 마음을) 함께 하신다면 왕천하를 하는 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sup>63)</sup>

용기, 사랑과 같은 개별적인 감정을 확충하여 정치에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작은 용기를 확충하여 大勇을 이루는 것이 仁政을 이루는 길이고, 부부간의 사랑을 확충하여 그 사랑이 백성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王天下하는 길이라는 충고이다. 주자가, “원망하는 여자와 홀아비가 없었던 것은, 大王이 여색을 좋아하되 능히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백성에게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64)</sup>라고 하였는데,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을 확충하여 백성들에게까지 미침으로써 仁政을 이룰 수 있다는 孟자의 말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惻隱之心을 仁政으로까지 확충시킨 것이 바로, 유명한 殷鑒章이다. 동물에 대해서도 惻隱之心을 발휘했던 齊宣王에게, 그 마음을 확충하여 사람에게 이르게 하고 한 사람에 대한 惻隱之心을 확충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한다면 그것이 곧 仁政임을 깨우쳐 주고 있다.

(齊宣王이) “德이 어떠한 왕천하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孟子가 대답하였다. “백성을 보호하면 왕천하하게 되니,<sup>65)</sup>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과인과 같은 자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무슨 연유로 제가 가능함을 아십니까?” “臣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胡齮에

63) <梁惠王下·5章>, “王曰. 寡人有疾, 寡人好色. 對曰. 昔者, 大王好色, 愛厥妃, 詩云, 古公亶父, 來朝走馬, 率西水滸, 至於岐下, 爰及姜女, 聿來胥宇. 當是時也, 內無怨女, 外無曠夫. 王如好色, 與百姓同之, 於王何有.”

64) “無怨曠者, 是大王好色而能推己之心, 以及民也.”

65) 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백성을 보호하여 왕천하하게 되면’으로 번역해 왔는데, 이렇게 하면 문맥이 순조롭지 못하다. 필자는 ‘而’를 연사 ‘則’의 용법으로 보아 위와 같이 번역하였다. ‘而’가 ‘則’의 용법으로 쓰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荀子·勸學>, “옥이 산에 있으면 초목이 윤택하다.(玉在山, 而草木潤.);” <梁惠王上·1章>, “상하가 서로 이익을 추구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上交征利, 而國危矣.);” <告子上·9章>, “내가 물러나면 임금을 차게 하는 자들이 이르게 된다.(吾退, 而寒之者至矣.)”

게서 들었습니다. 왕께서 堂上에 앉아 계시는데, 소를 끌고 堂下로 지나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왕께서 이를 보고, ‘소는 어디로 데려가는가?’라고 물으시자, ‘장차 鑿鐘의 예에 쓰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왕께서, ‘놓아주어라. 나는 그것이 두려워 벌벌 떨며 죄 없이 死地로 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라고 하시니, ‘그렇다면 鑿鐘의 예를 폐지하오리까?’라고 묻자, 왕께서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는가. 羊으로 바꾸어라.’라고 하셨는데, 알지 못하겠습디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족히 왕천하하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께서 재물을 아끼셨다고 여기지만, 신은 진실로 왕께서 차마 하지 못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sup>66)</sup>

동물에까지 미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之心)’이 仁의 단서이다. 이를 제대로 확충하여 차마 해 내는 데까지 미루어 나가면 仁政을 이루게 된다. 주자가 “왕은 소가 두려워 떠는 것을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하였으니, 바로 ‘惻隱之心은 仁之端’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擴充한다면 四海를 보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孟子가 지적하여 말함으로써, 왕이 이에 대해 살펴 알아서 확충하기를 바란 것이다.”<sup>67)</sup>라고 하여 역시 확충의 논리로 이 대화의 단계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맹자는 다시 확충의 논리로 구체적인 설명을 가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그렇겠습니까. 진실로 (그런) 백성들이 있겠습니까마는齊나라가 비록 좁고 작으나 제가 어찌 소 한 마리를 아끼겠습니까. 바로 그 소가 두려워 떨면서 죄 없이 死地로 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였습니다.

66) <梁惠王上·7章>, “(齊宣王)曰, 德何如, 則可以王矣. 曰保民而王, 莫之能禦也. 曰若寡人者, 可以保民乎哉. 曰可. 曰何由知吾可也. 曰臣聞之胡龔曰. 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曰牛何之, 對曰將以鑿鐘. 王曰舍之. 吾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 對曰, 然則廢鑿鐘與. 曰何可廢也. 以羊易之. 不識, 有諸. 曰有之. 曰是心, 足以王矣. 百姓皆以王爲愛也, 臣固知王之不忍也.”

67) <梁惠王上·7章> 朱子註, “王見牛之觳觫而不忍殺, 即所謂惻隱之心仁之端也. 擴而充之, 則可以保四海矣. 故孟子指而言之, 欲王察識於此而擴充之也.”

그래서 양으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께서 재물을 아끼셨다고 여긴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소서.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과 바꿨으니, 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왕께서 만일 그것이 죄 없이 사지로 가는 것을 측은히 여기셨다면 소와 양을 어찌 구별하셨습니까?” 왕이 웃으며 말하였다. “이것은 진실로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재물을 아껴서 양으로 바꾸게 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백성들은 나더러 재물을 아꼈다고 하겠군요.” “해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仁政을 이루는 길이니, 소는 보았고 양은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君子는 禽獸에 대해서 그것이 산 것을 보고는 차마 그것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며, (죽으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sup>68)</sup>

이 惻隱之心의 확충이 바로 仁政의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동물에 대해 지닌 惻隱之心은 쉽게 사람에게 확대시킬 수 있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시킬 수 있다. 즉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확충하여 차마 해 내던 것에 까지 이르게 하면, 그 마음은 모든 대상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충하여 仁義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잘 설명한 것이 <盡心下·31章>이다.

사람들은 모두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가 차마 해 내는 데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仁이고, 사람들은 모두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가 해 내는 데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義이다. 사람이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확충할 수 있다면 仁을 이루 다 쓰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담을 뚫거나 넘어가서 도둑질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확충할 수 있다면 義를 이루 다 쓰지 못할 것이다.<sup>69)</sup>

68) <梁惠王上·7章>, “王曰, 然. 誠有百姓者, 齊國雖褊小, 吾何愛一牛. 卽不忍其觶觶若無罪而就死地. 故以羊易之也. 曰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 以小易大, 彼惡知之.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 則牛羊何擇焉. 王笑曰. 是誠何心哉.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 宜乎百姓之謂我愛也. 曰無傷也. 是乃仁術也, 見牛, 未見羊也. 君子之於禽獸也, 見其生, 不忍見其死, 聞其聲, 不忍食其肉.”

69) <盡心下·31章>, “人皆有所不忍, 達之於其所忍, 仁也, 人皆有所不爲, 達之於其所爲, 盡也. 人能充無欲害人之心, 而仁, 不可勝用也, 人能充無穿鑿之心, 而義, 不可勝用也.”

‘차마 하지 못하는 것(所不忍)’이 惻隱之心으로 仁의 단서이고, ‘하지 않는 것(所不爲)’이 羞惡之心으로 義의 단서이다.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확충하여 ‘차마 해 내는 것(所忍)’, 즉 잔인하게 할 수 있었던 것[害人]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仁이고, 하지 않는 마음을 확충하여 ‘해 내는 것(所爲)’, 즉 염치없이 하던 것[穿踰]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義이다. 이렇게 되면 仁과 義가 충만된다. ‘이르게 함(達)’으로 표현된 확충이 仁義의 완성이고 이 상태가 왕천하의 조건이다. 다음의 <梁惠王上·7章>에서 齊宣王에게 제시한 ‘은혜를 미루는 것(推恩)’이, 仁政을 이루는 데에 있어 맹자가 운용한 확충 이론의 완결이라고 하겠다.

내 노인을 노인으로 섬겨서 남의 노인에게까지 미치며, 내 어린이를 어린이로 사랑해서 남의 어린이에게까지 미친다면 天下는 손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詩經>에 이르기를,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서 兄弟에 이르고, 家와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였으니, 이 마음을 들어서 저기에 적용할 뿐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면 족히 四海를 보호할 수 있고 은혜를 미루지 못하면 妻子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남들보다 크게 뛰어났던 것은 다른 것이 없었으니, 자기가 하는 바를 잘 미루었을 뿐입니다.<sup>70)</sup>

바로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도리를 밝힌 것이다. 개인에서 가족으로, 나아가 국가, 천하로까지 사랑을 확충하는 단계가 논리적으로 진술되고 있다. “加諸彼”의 ‘加’가 역시 확충의 의미이고, “推其所爲”의 ‘推’가 또한 확충의 의미이다.

당시의 군주들이 仁政을 어렵게 여겨 외면할 때, 맹자는 그들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확충의 논리를 운용하였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사랑하는 도리를 백성들에게 확충하면 仁政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요

70) <梁惠王上·7章>,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詩云, 刑于寡妻, 至于兄弟, 以御于家邦. 言舉斯心, 加諸彼而已. 故推恩, 足以保四海, 不推恩, 無以保妻子. 古之人, 所以大過人者, 無他焉, 善推其所爲而已矣.”

점이다. 즉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움직일 정도로 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쉽고 가까운 도리를 확충하는 데[推恩]에 있다는 설명이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맹자 사상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맹자 자신이 언급했고 구사했던 확충의 논리를 가지고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맹자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孟子는 이전의 유가 경전들, 특히 《論語》, 《大學》, 《中庸》 등에서 확충의 논리를 차용하고, 이를 더욱 체계화시켜 활용했다고 하겠다. 맹자가 擴充의 論理를 적용한 주요 부분은 仁義論, 性善論, 修養論, 仁政論 등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논증하는 데에서 擴充의 論理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맹자가 확충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사용한, ‘擴’, ‘充’, ‘推’, ‘養’, ‘盡’, ‘熟’, ‘達’, ‘加’ 등의 용어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논리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요컨대 맹자는 확충이라는 논리의 전개 방식을 통하여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구체화해냄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확립하였고 또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楊伯峻(1962), 《孟子譯註》, 中華書局.
- 張曉光(2002), < 孟子的推類思想 >, 《新陽師範學院學報》 第22卷 4期.
- 劉生良(2005), < < 孟子 > 論辯藝術技巧探微 >, 《蘭州大學學報》 2005年 第2期.
- 劉清平(2005), < 論孟子推恩說的深度悖論 >, 《齊魯學刊》 總第187期.
- 馮浩菲(2005), < 孟子對孔子仁學的捍衛與發揚 >, 《理論學刊》 2005 第12期.
- 高立梅(2006), < 孟子“仁義內在”說淺析 >, 《華中科技大學學報》 2006 第2期.
- 郭燕華, 詹世友(2006), < 存養擴充: 孟子道德教化思想之理路 >, 《南昌大學學報》 第37卷 4期.
- 許醴(2007), < 論孟子“充實之謂美”的美學意蘊 >, 《新餘高專學報》 第12卷 第1期.
- 張彥修(2007), < 孟子對孔子仁的推演事迹的述評與聖化 >, 《河南大學學報》 第47卷 3期.
- 이혜경(2008), 《맹자,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길》, 도서출판 그린비.

원고접수일: 2010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10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31일

## 孟子的擴充論理

金昌煥

学习《孟子》的关键是孟子的“扩充理论”，用孟子的话来说，就是“扩而充之”。孟子善辩众所周知，“扩充理论”便是孟子理论中最重要的组成部分。孟子提出来的一系列重要的观点就是利用扩充理论来展开的。他的不少主张从最初的思维扩充发展为完整的理论。因此，考察扩充理论，并根据这个论理来分析《孟子》一书的内容，恐怕是学习、理解《孟子》的一条捷径。

孟子以前的儒家经典，比如，《论语》、《大学》、《中庸》等书里采用扩充方式展开理论的例子屡见不鲜。孟子从中借用并使其更加体系化而运用于展开自己的主张。

孟子将扩充理论用之于仁义论、性善论、修养论、仁政论等诸方面。在仁义论里，他强调仁义达到并维持最善状态之方法就是扩充；在性善论里，他主张人性的本质是明善。只有好好维持并扩充才能达到完善的境地；在修养论里，他将修养的方法比喻为草木萌芽，成长，结果的过程，主张这一过程也需要不断扩充；在仁政论里，他试图利用扩充理论来说服当时的君主实施仁政。

根据扩充理论来考察《孟子》，可以更深刻地了解其内容，可以发现孟子在运用扩充理论的时候使用的一些词汇，如，扩、充、推、养、尽、进、熟、全、达、加等在根据不同情况展开理论时都在发挥重要的作用。

总而言之，孟子利用扩充理论确立了自己的思想，并且有机地组织他所主张的内容。